

“매주 수요일 저녁은 집에 ‘가야(家夜)데이’”

구례군, 야근·저녁회식 지양하고 정시 퇴근 일과 가정 양립 직장분위기 조성위해 권장

구례군은 1월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은 가족과 저녁을 함께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가야(家夜)데이’를 시행하고 있다.

야근·저녁회식을 지양하고 정시에 퇴근하여 가족과 저녁식사·대화·산책 등을 함께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

기 위해 매주 수요일 저녁은 원칙적으로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단, 행사준비, 현안사업 준비 및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타당성 판단 후 제한적으로 승인하고 있다.

군은 직장, 회식, 야근 등 늦은 귀가로 인한 가족과의 대화시간 부족, 신

체적, 정신적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업무능률 저하 등을 없애기 위해 적극 이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서가 출근수법 해 정시에 퇴근하고, 초과근무와 각종 회식 등을 자제하고 퇴근시간대 업무지도도 삼가고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전 공무원이 매주 수요일 정시에 퇴근해 외식·문

화생활 등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시간과 여가생활을 보내게 돼 소비촉진으로 지역경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가정에서의 안정을 찾아 화목한 가정생활 유지와 대민 행정서비스도 향상될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나주시, 어린이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 오는 10일까지 신청·접수

나주시는 어린이 건강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 된 통학용 경우 차량을 폐차하고 LPG연료를 사용하는 소형 승합(9-15인승) 차량을 구입할 시 1대당(총40대) 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필증 주소지가 나주시에 등록되었고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다. 공동 소유자의 경우 1인이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특례조항 신설로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기 위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 신청(문의)은 오는 10일까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서류를 작성, 나주시청 환경관리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대기 오염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따른 쾌적한 대기환경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곡성군, 규제 장벽 없애 주민 편의 높인다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규제혁신 추진계획안 수립



곡성군이 지난 1월29일 군청 소풍마루에서 제2회 규제개혁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안’ 설명과 ‘곡성군 가스사업 허가기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신설 강화규제를 심사가 진행됐다.

‘규제혁신 추진계획안’에는 곡성군의 규제개혁 추진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가 담겼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에 따르면 올해 곡성군은 지역균형 뉴딜 사업과 관련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에 힘을 쏟

을 예정이다. 또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기존 규제의 체계적 정비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결과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됐다. 조례안은 고압가스판매사업 중 가연성가스, 산소, 독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의 면적을 각 10㎡에서 각 15㎡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경우 충전소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를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2배 유지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추진을 위해 개인의 경우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10만 원 이상,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재원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위원들은 담당부서로부터 조례안 개정 이유와 필요성을 청취하고 인근 시군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기존 규제를 왜 강화해야 되는지를 꼼꼼히 따졌고, 규제입증 책임제에 따라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관련부서에서는 “규제가 강화된 부분에 대해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능한 부분이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장벽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검토해 일부 수정하겠다.”라고 답했다.

군 관계자는 “규제 혁신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각종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등록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해영 기자

담양군 “온라인으로 추모·성묘하세요”

담양군은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의 추모객들이 모이는 군립묘원의 설 연휴기간 중 온라인 추모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용 희망 성묘객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e하늘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http://www.ehaneul.go.kr/>)를 통해 2월 10일까지 사전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차례상 차림기능, 영정사진관리, 헌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감항공원과 오통공원을 부득이 방문하는 추모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추모시간 10분 제

한, 음식물 섭취 금지, 유족 휴게실 사용 금지 등 다양한 방역 수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의 추모객들이 모이는 감항공원에 차량 홀·박제를 시행한다.

감항공원은 작년 추석 당일 4,500여명의 추모객들이 방문하였으며, 올 설명절에도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모객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의 뒷 번호가 흡수인 경우에는 ‘오전’ 짝수인 경우에는 ‘오후’에 추모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담양=박종영 기자



감항공원

장성군, 고령 운전면허 자진 반납 만 70세부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 고령 주민 불편 해소

장성군이 올해부터 만 70세 이상(1951년 12월 31일) 주민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반납을 받는다. 군은 작년 까지 만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한해서만 받았던 반납 신청의 연령 제한을 완화했다.

신청 기준에 부합하는 운전자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비롯한 본인 소유의 모든 면허증을 반납하면, 군은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장성사랑상품권)를 지급한다.

이전까지는 경찰서에서만 접수했으나, 작년 8월 간소화 서비스 시행 이후,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가 가능해졌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주민들의 편의성이 한결 개선되었다.

장성군 관계자는 “면허증 반납 연령 제한을 만 70세까지 낮춤으로 인해 사업 신청률 증가와 교통사고 감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화순군드림스타트, ‘비대면 취미 교실’ 큰 호응

화순군 드림스타트가 코로나19 확산세로 몸과 마음이 지친 드림스타트 대상 전체 아동 172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맞춤형 취미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말 약 1주간에 걸쳐 대상자들에게 공예, 요리, 곤충 세 가지 영역 중 원하는 분야를 사전에 신청받았고 키트는 설날 전에 비대면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겨울방학으로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취미 교실을 운영한다. 취미 교실을 통해 인터넷 의존 정도를 줄이고 건전한 취미 활동을 지원한다.

한 참가자의 부모는 “매번 새로운 교육과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해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의 하나로 제공한 ‘실천 노트’는 아이가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큰 계기가 됐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화순군드림스타트는 0세부터 만 12세까지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